

사회

관권선거에 인사비리 '발각' 뒤집힌 서구청

전주언 서구청장 체포 ... 주민들도 당혹

6·2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이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됨에 따라 지역 관가와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전 청장과 서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인사비리 여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구청 안팎에선 전 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사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서구청 인사비리 의혹 집중 조사=검찰이 인사비리 혐의로 전 청장을 체포함에 따라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규)는 전 청장과 서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사과정에서 실제 '뒷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날 6·2 선거에 앞서 불거진 관권선거 관련 재판을 받고 나오는 전 청장을 전격 체포함에 따라 인사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일 구청 고위 간

부인 B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3000만원을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서구청의 인사과정에서 승진 희망자와 전 청장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청장에 대한 관권선거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구청 고위 간부의 이메일에서 인사비리에 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서구청의 인사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보내 서구청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근무평정, 인사발령 자료 등 A4용지 150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구청 소속 A사무원이 이날 오후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은 상태다.

◇서구청 직원, 주민들 '망연자실'

=서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은 전 청장이 당선된 지 불과 5일 만에 검찰에 체포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구청 안팎에선 전 청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사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구청의 한 공무원은 "청장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한 직원을 대부분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 구청 운영 자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51)씨는 "전 청장이 관권선거를 하지않았다는 믿음으로 표를 줬는데 인사비리 의혹까지 받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 청장은 지난 4월 28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 1300여명을 모집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담배밭 '썩대밭' 7일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담배밭에서 이덕림(여·71)씨가 지난 6일 쏟아진 우박으로 갈기 찢겨 나간 담배잎을 쳐다보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박 '날벼락'

나주·광주 광산구 농작물 큰 피해

나주와 광주 광산구 일부 지역에서 지난 6일 오후 돌풍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지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7일 나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경부터 1시간 가량 나주 노안·금천면 일대와 광주 광산구 송정·월곡동 일대, 서구 쌍촌동 일대 등에 직경 1~3cm 가량의 우박이 쏟아졌다. 이 우박으로 나주 배

과수원은 물론 나주 노안과 광산구 일대에서 모종을 마친 고추와 잎담배, 토마토 등에 큰 피해가 났다.

이번 우박피해는 노안면 일원에 집중됐으며 200여 농가의 배 과수원 160ha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엽거름(잎담배)을 재배하는 80여 농가에 40ha, 시설하우스 60여농가 1.5ha, 기타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30여 농가가 1ha의 피해를 입은 것

로 파악됐다.

나주 지역에서는 우박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배 열매에 상처를 입히거나 잎에 구멍을 뚫었다. 대부분 농가가 열매 봉지 씌우기를 앞둔 상태에서 피해는 더욱 컸다.

우박이 내릴 당시 돌풍까지 몰아치면서 낙과 피해도 속출했다. 노안면 일대는 지난해에도 5월 말에 우박이 쏟아져 1200여 농가가 피해를 봤다.

노안면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조병목(62)씨는 "60평생 살면서 바둑알 크기의 우박이 40여분 간이나 쏟아지는 것은 처음 봤다"며 "배 나무 열매를 비롯해 잎사귀까지 도무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고 울먹였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200년 된 고목 휴친 5명 영장

보성경찰청은 7일 문중 소유의 수령 200년짜리 고목을 휴쳐 관 김모(46)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경업자 김모(54)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5명은 지난달 9일 밤 보성군 읍어면 모 문중 제각 인근에 심어 놓은 200년 된 백일홍 나무 2그루(시가 3000만원)를 훔쳐 조경업자 김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낙선 목포시의원 통장들에 돈 살포

목포경찰청은 7일 통장들에게 6·2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포시 의원 정모(67)씨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

일 오전 9시경 목포시 목원동 한 지역 통장인 윤모(60)씨 집에서 윤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받은 돈을 다른 통장 28명에게 10만~2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통장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에게 지지를 부탁하려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정씨와 윤씨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남구청 역대 뇌물' 황일봉 청장 수사

광주 남부경찰 "광주 남구청 공무원의 역대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일봉 남구청장 등 구청 고위 간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청은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남구청 공무원 채모(41·6급)씨로부터 "황일봉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황 청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황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청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채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씨는 지난 2일 오후 모 전력회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35차례에 걸쳐 총 1억14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채씨가 단독으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 고위급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바다낚시 등 23건 적발

목포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불법 바다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을 집중 단속해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적발된 미신고 영업 행위 7건, 수상레저 무면허 운전 7건, 음주운행 3건, 정원초과와 출·입항 신고 미필 등 5건은 벌금, 승선정원 및 고시사항 미게시 1건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청은 7일 치어까지 싸슬이하는 속칭 '고대구리' 조업을 한 혐의로 유모(36), 마모(42)씨 등 선장 2명을 구속하고 장모(34·고흥군 도양읍)씨 등 선장과 선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편의점 현금지급기 발로 차고 소란
○현금이체가 안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현금지급기를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백모(36·광주시 동구 충장로5가)씨는 지난 6일 밤 11시경 광주시 동구 금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이체하려다가 조작이 잘 안 되자 화김에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고, 계산대 위에 있는 리모컨을 던진 혐의.

○경찰조사 결과 술을 마신 채 근처 PC방에서 한계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던 백씨는 "이체가 잘 안되자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دون선거 장성군의원 등 2명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7일 청년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현장을 감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성군의원 회 이모 의원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경 일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7~8명의 청년들을 고용한 뒤 모 군수 후보의 금품 살포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활동 초기 청년들에게

건넨 500만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4일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이들에게 건네려다 현장을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 의원이 동원한 청년들은 특정 모델을 합숙소로 사용하며 주유소 2곳과 식당 1곳을 지정해 한 달 가까이 급유와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Challenge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양성과정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업료, 실습료 등 교육비가 무료이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수업료, 실습료 등 교육비가 무료이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수업료, 실습료 등 교육비가 무료이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수업료, 실습료 등 교육비가 무료이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수업료, 실습료 등 교육비가 무료이다.)

신청자격	경북대학교 및 동원대학교의 고졸 이상의 학력
수업료	무원고교
교육비	교육비(수업료, 실습료, 교재비 등)는 무료이다. (수업료, 실습료 등 교육비가 무료이다.)
교육기간	교육기간 : 1년(2학기)
교육장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로 111 (광주대학교)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로 111 (광주대학교) 300호 교육지원팀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gnu.ac.kr> 전화문의: 010-544-4350